

# “재정투입” 촉구에도 바짝 조이는 도정

### 도, 내년 세출예산 심사 돌입...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가용재원 급감 예상에 보조사업 등 추진 어려울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생명·안전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도의회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2021년 예산 요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28일부터 세출예산 심사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10월13일까지 실무 심사 및 조정·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11일 제주의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긴급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연례·반복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내년 총세입이 4조5674억원으로 올해 대비 407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른 순수 가용재원 급감으로 신규 및 보조·자체사업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내년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두고 적법성과 적정성에 따라 예산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100% 전액 반영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한다.

긴급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핵심 키워드로 시급성과 선심성 사업들을 구분해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을 중지할 계획이다.

또 주민서비스 사업 중 우선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미반영되며, 관행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포럼 등을 비롯해 시찰성·일회성 사업들은 재검토된다.

한편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도·행정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요구는 6조7892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5조8229억원) 대비 16.6% 증가한 규모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오름 정상에서 만난 제주 가을 28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정상에 찾은 관광객들이 파란 하늘에 억새가 어우러진 제주의 가을을 한껏 느끼고 있다. 강희만기자

## 집 걱정 덜까... 위기가구에 임대주택 지원

### 도, 코로나 주거 지원책 확정 매입임대주택 무상임대 시범 공공주택 임대료 50% 감면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에 나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5일

도청 집무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제주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임대료 체납 등 주거 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공실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량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기간은 6개월 이하 단기 거주로 추후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자·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제주개발

공사) 공공임대주택 717세대(매입임대주택 599세대, 행복주택 118세대) 입주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의 전국 확대 시행과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거 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긴급 주거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에 마련하는 ‘코로나 19 주거 위기가구 긴급 주거 지원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올해 8월말 기준 1116명에게 4397필지(343만1000㎡)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28일 밝

혔다. 이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소유 토지의 유무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 현황을 조회·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원과

함께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토지소유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재산상속인이다. 신

청은 신청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백규탁기자 haru@ihalla.com

## 미혼청년 절반 “결혼? 해도 안해도” 자녀 필요성도 미온적... 대응 필요

### 제주여가원 연구보고서

제주도내 미혼청년 절반 이상이 결혼 필요성에 대해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미온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청년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과 자녀 양육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8일 도내 저출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지역 2030 미혼청년의 결혼·출산 의향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제주여가원은 이번 연구에서 도내 20~39세 미혼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관련 인식 및 배경,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혼 및 출산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조사 결과 미혼청년의 57.8%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해 상당히 미온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청년여성은 결혼 의향이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경우가 26.3%로 남성 11.1%보다 더 높았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에서는 55.8%가 자녀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여겼지만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중립·미온적인 태도도 33%로 높은 편이어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제주여가원은 미혼청년의 희망 자녀 수는 1.91명, 실제 계획하는 자녀 수는 1.36명으로 괴리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여성에게 계획하는 자녀 수는 1.12명으로 청년남성 1.59명보다 더 적었다.

자녀 수를 1명 이하로 계획하는 주된 이유로는 '자녀 양육 부담(44.5%)'을 꼽았다.

이와 관련 제주여가원은 결혼 지원방안으로 ▷성평등 및 연애, 결혼, 출산 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 ▷일자리 및 자아실현 지원 ▷결혼 준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을, 출산 지원방안으로 ▷출산 지원 제도 등 홍보 강화 ▷출산·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임신·출산 과정 지원 ▷일·가정 양립 및 양육 지원 ▷출산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신임 정의당 도당 위원장에 고은실 의원

신임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 고은실(제주도의회의원·사천) 후보가 당선됐다.



경선을 치른 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고은실 후보가 64.6%, 김점철 후보가 35.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임 고 위원장은 “혁신하는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출발점에 서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위원장은 김정민 제주도당 농민위원장, 박삼미 서귀포시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당선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오은지기자

### 자가격리관리전담반 운영 서귀포시, 추석 연휴 기간

추석연휴 기간 자가격리자 및 재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추석연휴 기간 여객터미널·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54곳에 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재난 안전상황실 인력 보강으로 초동대응반·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을 운영

한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추석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의 인력을 보강, 초동대응반 운영을 통해 예측불허 재난상황에 신속·적극적으로 현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추석연휴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재난안전홍보전광판 7곳에 진료·이용 가능한 지역별 병·의원 현황과 생활불편 민원 신고 연락처 등을 표출할 계획이다. 현영홍기자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조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농업인이란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농가**

당도를 올리기 위해 10월초부터 3~4일 간격  
해피그린 3병 + 글루칼2포를 1,000ℓ(50말)에 3번 엽면시비

**양배추·브로콜리·  
마늘·감자·당근**

※ 파종이 늦은 농가는  
잘커진액 5ℓ + 썬파고 8ℓ + 살충제 2,000ℓ(100말)에 살포

※ 찬바람이 불기전(10월 중·하순)  
희토락F 5ℓ + 썬파고 8ℓ + V패스 4ℓ + 살충제 2,000ℓ(100말)에 살포

→ 양배추, 프로콜리는 불병·뿌리혹병 예방, 감자는 시들음병 예방

**제품 소개**

- 해피한 그린 : 희토류가 들어 있어 당 상승 효과
- 글루칼 : 글루콘산이 99.9% 들어있는 포도당 칼슘
- 썬파고 : 제독처리된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무름병, 흰가루병, 노균병, 탄저병, 녹병 등)
- V패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양배추 불병, 뿌리혹병, 밀싹음병 등)
- 잘커진액 : 동물성 아미노산으로 만든 영양제로 흡수율이 87~88%나 되는 영양생장 촉진제
- 희토락F : 희토류와 부식산 및 철분이 들어있는 비대축진제

##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